

문화재 인근 건설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재청 문화재 619건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불교계 대책마련 시급

국가지정문화재 인근에서의 건설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사찰, 석탑 등 국가지정문화재 다수를 보유한 불교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화재청(청장 이강민)은 구랍 28일, 중원탑평리칠층석탑 등 국보·보물 228건을 포함한 619건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말경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2010년까지 1600여 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모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행위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책정된 제도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

업시행자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건설행위를 할 때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들 전문가 1/2 이상이 건설행위 등이 문화재에 영향을 있다고 판단하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처리기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허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등 건설행위 주체의 입장에서는 불편이 커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안 받아도 되며, 허용기준 범위 내의 건설행위는 시·군·구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며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개별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문화재 보호 정책은 완화추세에 있다.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에 대한 영향검토 완화 등을 주 요 골자로 하며, 지난해 공포된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그 예이다.

교계에서는 민원해소를 명분으로 MB정부의 개별 논리가 문화재 보호 정책까지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문화재 보유 사찰의 고충이 해결되게 됐다는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화장실 하나를 짓더라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일부 사찰들은 이번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으로 불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불교계가 정작 정부의 문화재 정책 입안 과정에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문화재청의 이번 발표에 앞서, 경남 김해시와 경북 의성군, 경기 안성시, 전북 남원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교계에서는 아무 의견도 내지 못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이분희 행정관은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마련에 관해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 '국보'

문화재청 보물서 국보로 승격 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강민)은 구랍 30일, 보물 제138호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를 국보 제315호로 승격·지정했다.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는 구산선문의 하나인 회양산문의 개창자 도현 국사, 즉 지증대사의 탑비이다. 비석의 크기나 규모와 이수(의수)의 조각수법 등이 통일신라 말기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양식과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비의 비문은 신라의 대학자이며 문장가인 최치원이 지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는 최치원이 지은 대승복사비(大崇福寺碑), 성주사낭해화상백월보광탑비(聖住寺郎慧和尚白月光塔碑, 국보 제8호), 창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雙溪寺眞鑑禪師大空塔碑, 국보 제47호)와 함께 4산비문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비문에는 신라의 불교사를 세 시기로 나눠 약술하고 도신(道信) - 쌍봉(雙峰) - 법랑(法朗) - 혜은(慧隱) - 도헌(道憲)으로 이어지는



국보 제315호로 승격 지정된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

도헌 국사의 법계(法系)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신라시대 선종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는다. 또한 이 비에는 탑비를 세운 연대와 비문을 쓰고 새긴 사람이 경주 분황사의 혜강(慧江) 스님으로 밝혀져 있어서 한국 서예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같은 날, 문화재청은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등 대

구·경북 지역 중요 불교 문화재 16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보물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해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상주 남장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 '영주 부석사 석조석가여래좌상'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구미 수다사 영산회상도' '대구 동화사 보조국사지눌진영' '문경 김룡사 영산회괘불도' '상주 남장사 감로왕도' '안동 봉정사 영산회괘불도' '안동 봉정사 아미타설법도' '예천 용문사 천불도' '안동 광흥사 동종' '조조본 불설가삼부불반영반경' '길흥축월항간목판' '예천 명봉사 경월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 등이다.

이 문화재들은 문화재청이 2007년 추진한 경북 북부지역 258개 사찰 소장 1만 390점 불교 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보물 지정 가치가 인정된 31건 41점에 대한 심의 후 결정됐다.

조동섭 기자

'한국선학' 등 등재지 선정

한국연구재단 2009 학술지평가 결과 발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은 구랍 25일 2009년 학술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서 한국선학(회장 김영두)가 발행하는 학회지 <한국선학>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이 발간하는 <불교학보> 등이 등재지로,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이 펴내는 <선문화연구>가 등재후보지로 선정됐다.

또, 불교학연구회(회장 본자)의 <불교학연구>와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의 '불교연구'는 각각 등재유지와 등재후보유지를,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회장 송석구)의 영문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는 1차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불교학계 등재학술지로는 이번엔 선정된 <한국선학>과 <불교학보>를 비롯해, <강좌미술사>(한국불교미술학회) <보조사상>(보조사상연구원) <불교학연구>(불교학연구회) <한국불교학>(한국불교학회) <인도철학>(인도철학회) 등 7종으로 늘었다.

등재후보학술지는 새로 선정된 <

선문화연구>와 <대각사상>(대각사상연구원) <불교연구>(한국불교연구원) <동악미술사학>(동악미술사학회) 등 4종이다.

조동섭 기자

'3000만원 모교에'

東大 출신 연예인들

동국대 출신 연예인들이 구랍 23일 모교에 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연극 '햄릿' 공연의 수익금으로 올해 초 학교측에 전달한 수익을 합치면 5000여 만원을 기부한 셈이다.

동문 연예인을 대표해 전달식에 참석한 이정재 씨는 "동문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참여한 합동공연인 연극 '햄릿'에서 모두 최선을 다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수익금이 연극학과 후배들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만화는 선의 영역과 상통"

배종훈 작가 선 카툰 8~17일 불일미술관에서

"선(禪) 카툰이요? 마치 시(詩)와 같지요." 불교 만화가 배종훈 작가가 10년 동안 작업한 선(禪)적인 만화와 일러스트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배 작가가 그간 작업한 작품 중 30여 점만 특별히 엄선해 선보인다. 전시 구성은 각종 매체에 수록된 작가의 작품을 디지털 프린팅 한 것과 배 작가가 그간 별도로 작업해 온 불교관련 페인팅 작품들을 두 가지로 나눠 전시한다.

"사람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짧은 만화를 생각해 봤죠. 짧은 만화의 한 두 컷에 담긴 의미는 몇 권의 책보다 의미 있습니다. 만화는 선(禪)의 영역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많죠."

10여 년간 불교만화만을 고집해

온 배종훈 작가는 원래 불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불교의 사상과 정서의 매력에 빠져 지금껏 불교만화 작업을 이어왔다.

배 작가는 "특별한 부처도 특별한 깨달음도 없으며 결국 본래 그러하 것이 불교"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는 철저한 자기 수행과 나눔이 배어있다. 배 작가의 이런 수행이 담긴 작품들은 4호부터 100호까지 다양한 캔버스로 전시장을 가득 메운다.

한편 이번 전시는 생명나눔실천본부와 공동으로 기획해 판매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배종훈 작가의 '맑은 생각, 카툰 선(禪)을 만나다' 전시는 1월 8-17일 서울 법륜사 불일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이은정 기자



배종훈 작가의 작품.

사랑의 불서 1200권 “영담 스님의 특정 기자 표적인사”

법륜사, 교도소 등 보시

송광사 분원 법륜사(주지 보경)가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들에게 불서 보시를 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법륜사는 구랍 22일 경내에서 '사랑의 불서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보경 스님이 출간한 <사는 즐거움>을 포함한 불서 1200여 권을 사회교정시설(교도소)과 복지시설, 군부대 등에 전달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보경 스님은 "연말마다 불서를 구입해 보시했지만 이번에는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 의미가 크다"며 "책을 필요로 하는 곳도 많지만 우선 교화시설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앞으로는 군부대에도 책을 보내 군 포교 지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02)733-5322

이은정 기자

불기협, 불교신문 인사 비판 성명 내

불교신문(사장 해자)의 경영적 해소를 위한 인사이동 안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직수, 이하 불기협)가 불교신문의 인사발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총무부장 영담 스님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불기협은 구랍 29일 '불교신문 부당 인사에 대한 한국불교기자협회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에 전달했다. 불기협은 성명서에서 "최근 불교신문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보직변경에 불교계 기자 전체는 참담한 심정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인사발령은 인사회의를 주도한 부사장 영담 스님의 특정 기자에 대한 표적인사"라고 비판했다.

불교신문 인사위원회가 1월 1일 자료 보직변경 통보한 내용에 따르

면, 10년차 차장급 경력기자를 비롯해 인사 2년차 기자와 편집기능직 직원 등 편집국 기자들이 업무국 또는 신설된 전략기획팀 등으로 발령됐다.

불기협은 "경영년의 책임을 상대적 약자인 종사자에게만 묻는 교계의 분위기가 아쉽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보직변경과 부당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불교신문 발행인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불기협 임원은 "특정 스님과 불기협의 불편한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불자들이 열악한 교계 언론 환경에 대해 인식을 달리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